

# 전방·일신방직~신세계~터미널 '도심 속 도시'로 조성한다

광주시 시찰단, 도쿄 등 방문 첨단복합건물 개발 벤치마킹  
 쇼핑·휴식·문화생활·업무·주거를 한 곳에서 해결 '콤팩트 시티'  
 민간 사업 자율성 침해·개발계획 지연 등 우려 신중히 접근해야

광주시가 '더현대'를 품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와 광주신세계 확장 등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는 중합버스터미널 일대를 '15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도심 속 도시(콤팩트 시티)'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기로 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도심 속 도시' 개념을 접목해 성공한 일본 도쿄 첨단복합건물 개발 사례처럼 단순 쇼핑물 신축을 넘어서 시민이 일하고 머무르고, 즐기는 이른바 '직주락(職住樂)=LPW(Living·Playing·Working)' 기능을 집약한 새로운 도시 공간을 구상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이미 각 개발업체별로 독자적인 개발 밀그림을 구체화한 상황에서, 자칫 광주시 주도의 새로운 개발 구상안이 민간기업의 사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개발 계획을 지연시키는 등 각종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 등 현장시찰단은 지난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등을 방문해 첨단 복합건물과 도시재생·

재개발 현장 등을 둘러봤다.

시찰에는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과 박세진 금호익스프레스 상무 등 기업인도 동행해 개발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시, 신세계, 금호그룹은 현 신세계 백화점을 인근 유스퀘어 문화관까지 확장하고 중합버스터미널 일대를 광주대표 랜드마크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맺은 상태다.

이번 일본 현장 시찰단은 도쿄 개벽의 시작점으로 불리는 첨단복합건물 '뫼폰기힐스'를 시작으로, 마이스산업 육성과 국제관광 거점지구 조성을 위해 건립된 '아리아게가든', 도쿄역과 터미널 연계로 교통편의를 최대로 끌어올린 '미드타운 아에스', 도심 복합쇼핑문화시설인 '아자부다이힐스'와 '토리노몬힐스', 도심 재개발지역인 '다카시마다이' 등을 둘러봤다.

이들 지역은 개발 이전까지 유흥인구가 적고 경제활동이 정체한 도심 쇠락지역이었다. 현재는 대규모 복합쇼핑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쇼핑, 휴식, 문화생활, 업무, 주거를 한 곳에서

모두 해결 가능한 '도심 속 도시(콤팩트 시티)'로 변모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찰단은 특히 지난해 문을 연 일본 최고층 빌딩인 아자부다이힐스를 비롯한 뫼폰기힐스, 토라노몬힐스 등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모리빌딩 3중 복합단지외의 집결성 '연결성'에 주목했다.

모리빌딩은 도심 속 도시인 콤팩트 시티를 표방하며 교통 편의를 핵심으로 한 도시 기능을 한데 모아 '걸어서 10분 거리'에서 일하고, 배우고, 쉬고, 먹고, 즐기는 것이 가능한 도심 속 작은 도시로 성공했다는 점에서, 시찰단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 곳은 토지소유자 90% 동의를 받기 위해 개발 착수에서부터 문을 열기까지 35년이 걸렸지만, 공공에서 민간의 주도적 참여로 바꾸고,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지자체의 지원,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낸 점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고 시찰단은 설명했다.

시찰단은 이어 일본 대표적 부동산 종합개발회사로 최근 20여 년간 도쿄의 도심 재개발을 주도한 '모리 빌딩' 관계자들을 만나 민간협력형 개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찰단은 이번 일본 방문 결과물로 일본 복합쇼핑문화시설과 여권이 유사한 광주 임동(방직공장), 광천동(종합버스터미널)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서는 주거, 놀이, 일 등을 15분 거리에 집약하는 '도심 속 도시'로 만들어 보



강기정 시장과 박주형 신세계 대표이사 등 광주시 도시정책 현장시찰단은 지난 19일 일본 도쿄 '뫼폰기힐스'를 방문해 복합상업시설을 둘러봤다. <광주시 제공>

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강기정 시장은 "30년 전 부동산 버블로 무너진 일본이 복합개발로 다시 일어선다는 현장에 다녀왔으며, 결국 광주 도심 복합개발 또한 일과 주거, 교통과 이동, 공간과 건물이 연결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면서 "일하고 즐기며 삶이 함께하는 'LPW' 공간 중심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가전 중소기업 위기...시, 정부 지원 요청 범정부 민관합동실사단 현장실사...공적자금·근로자 대출 등 26개

광주에서 지역 가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정부 실사단이 광주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광주시는 실사단측에 대응위니아 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알리고, 공적자금·근로자 대출 지원 등 26개 사업의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부 등 범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실사단이 지난 19일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을 찾아 가전산업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데 따른 방문이다.

실사단은 광주시로부터 신청 내용을 보고받고 피해 현황, 지원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광주·하남·진곡·광동 산단을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해 피해 협력업체들을 돕고 있다.

광주시도 자체적으로 경영안정·수출진흥 자금 지원 기한 연장, 50억원 규모 특례 보증 지원,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응위니아그룹 계열사의 1차 협력업체는 346개, 피해액은 1146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광주지역 협력업체 피해는 133개, 829억원에 달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용두~담양 대전 하서로 확장 완전개통

광주시중합건설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북구 본촌동 조선대 재활병원부터 용전동 그린저택 문화원까지 하서로 확장 및 신설구간 1.6km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북구 용두동과 담양 대전면을 잇는 하서로 확장구간도 완전 개통됐다.

'광주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공사'는 국비 59억원, 시비 298억원을 들여 북구 용두동과 담양 대전면을 잇는 기존 왕복 2차로 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앞서 2021년 11월 하서로 중북구 용두중학교와 본촌동 조선대재활병원을 잇는 1.4km 구간은 사전 개통됐다.

광주시중합건설본부는 해당 구간의 완전 개통으로 교통 정체 완화 등 도로 서비스가 크게 향상하고, 신호등과 보행자 보호울타리, 보행자도로 등도 설치돼 인근 지산중등학교 등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남도장터, 설 선물 최대 30% 할인

'설 명절 인기상품을 최대 30% 깎아드립니다.'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박 잡기에 나섰다.

남도장터는 청룡의 해를 맞아 '푸른 빛 화룡점정'이라는 주제로 설 명절 기획전을 운영 중이다.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오는 2월 13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에서는 신석식품부터 가공식품, 전통 주

류 등 380여 개의 설 명절 인기상품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또 단일 품목을 20개 이상 대량주문 시 전체 금액의 10%를 할인하고 소고기·삼겹살 등 20여개 인기 상품에 대한 중복 할인도 제공한다.

남도장터는 지난 19일 용산역에서 이용객들에게 홍보물과 장바구니 등을 나눠주며 이같은 홍보·판촉 활동을 벌인데 이어 오는 29일 서울역을 찾아 같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국,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사용 '최하위'

OECD 평균 한달 넘게 차이...인색한 기업문화·낮은 소득대체율 분석

여아가 올해 출산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건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돌봄 기관을 늘리는 것보다 자신들이 직접 아이를 돌보기를 원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OECD 통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국가 평균(18.5주)과 비교했을 때 한 달 넘게 차이가 난다.

유럽연합(EU) 국가 평균(21.1주)과 비교하면 한국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두 달 가까이 짧다.

OECD 통계에서 회원국 중 유급 출산휴가가 가장 긴 나라는 그리스(43주)이고, 체코(28주), 뉴질랜드(26주) 등 일부 나라에서도 출산휴가가 25주를 넘는다. 다만 이들 세 나라

는 육아휴직이 합쳐진 것이라는 게 저고위 보고서에 작성한 연구진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출산휴가의 기간 자체도 짧지만, 이를 이용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17개국 중 멕시코(13.0명) 다음으로 적었다. 이는 대기업보다 일·가정 양립 문화에 소극적인 중소기업 종사자나 출산휴가를 다스기 쉽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반영된 수치로 보인다.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우리나라의 바로 앞에 있는 칠레(47.8명)와 비교해도 20명 넘게 차이가 났다.

유급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한국이 48.0명인데, 일본(44.4명) 외에는 우리보다 적은 나라가 없었다.

이런 저조한 이용률은 육아휴직 등에 인색한 기업문화와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 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분할공고

(채권자 이외 및 주권재출공고)

1. 주식회사 에이치에이글로벌은 2024년 1월 18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인체비배분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가정주거) 회사 불우회(브라운)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에이치에이글로벌은 존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불우회(브라운)는 주식회사 에이치에이글로벌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에 의미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정일(1월 22일)부터 2024년 2월 21일까지 2주 제출 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 17-6, 207호(영양동, 에이앤시티4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주식회사 에이치에이글로벌**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 17-6, 207호 (영양동, 에이앤시티4차)  
 대표이사 강인혁

### 분할합병 및 주권재출공고

주식회사 남동(이하 남동)과 주식회사 소망(이하 소망)은 2024년 01월 19일 각 회계연도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을 결의하고 그 결과로(남) 주식회사 남동 전기공사(제 경회-00528호)를 분할하여 (남) 분할된 부분과 (남) 주식회사 소망과 합병하고 (남)과 (남)은 존속하며 상법 제530조의 9제3항의 출자계약에 의거하여 남동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분할합병에 대하여 의미가 있는 채권자 및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본 공고제정일(1월 22일) 이후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2일  
 영도대상: 전기공사(제 경회-00528호)  
 \*남) 주식회사 남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27-1 대표이사 김재명 (061-227-0357)  
 \*남) 주식회사 소망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27-1 대표이사 정홍구 (061-227-0357)

###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

당 회사는 2023년 12월 07일 주주서면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주식회사 천지정보**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82  
 청산인 최선욱

71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선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광주 925-3761 • 신 안 222-8171  
 • 영 산 571-7658 • 오 치 266-7001  
 • 용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9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동 영 222-9054  
 • 중 정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936 • 벽 은 651-1833  
 • 북 선 673-6936 • 송 하 675-68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삼 부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영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0-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